

철저한 대비로 태풍 피해 최소화 총력

우범기 전주시장,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예방대책·주요 시설물·대피시설 점검 등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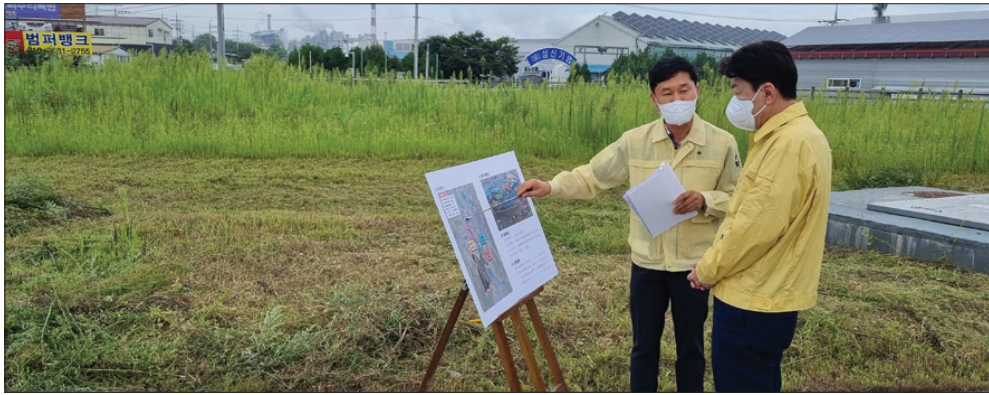
우범기 전주시장이 북상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안전한 명절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6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막대한 생명·재산 피해를 야기한 지난 2002년 태풍 '투사'나 2003년 태풍 '매미'보다 강력한 위력을 지녀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5일 전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현재 북상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분야별 태풍 대비태세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및 재해예방보수시설·배수시설·위험지역 CCTV 가동상태 점검 △침수대비 물막이 모래주머니 지원 △주요 배수로 및 우수관로 청소 △강풍 대비 시설물 점검 △이재민 발생 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대피시설 점검 등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등 각종 생활안전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우범기 전주시장이 북상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안전한 명절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 1일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팔복동 매화 우수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을 사전점검 했다.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은 과거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팔복동 금학천 부근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총 17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완공된 시설이다.

시는 또 지난 2일에는 부시장 주재로 13개 협업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기상상황 분석과 대처방안 △비상근무단계 설정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별 역할 확인 △취약시설 안전조치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재 태풍이 북상하고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있어 모

든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태풍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관바로 피해복구 절차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고유 음식문화 보존·발전

19일-10월 5일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신규 지정신청 접수

전주시에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손맛을 지닌 명인과 업소 등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와 유네스코음식창의업소의 신규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현재 전주에는 △전주음식 명인 6명 △전주음식 명가 5개소 △전주음식 명소 2개소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12개소가 지정돼있다.

신청 대상은 △향토음식 등을 20년 이상 조리한 자 △20년 이상 영업한 업소 △가정 등에서 가문 내 리듬음식의 비법이나 기능을 3대 이상 전수받은 조리경력 10년 이상인 자 △프랜차이즈 업소를 제외한 동일 메뉴로 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류와 함께 관련 조례에 따라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관

공산업과 한식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380, 238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조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조리경력, 전주음식의 우수성, 업소 환경 및 위생, 업소 분위기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시는 선정결과에 따라 지정서와 표지판을 교부하고, 국내외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와 업소 홍보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 고유의 음식문화와 맛을 지키고 세계적인 미식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주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명인, 명가, 명소,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것"이라며 "음식관광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음식문화를 보존·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평가보고회 개최

전주시는 5일 전주시립도서관 북실에서 전주그림책도서전 조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 5월 한 달여간 전주 지역 시립도서관과 동네책방 등에서 진행된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전 조직위원들은 원화전을 비롯한 그림책 전시 및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도서관에서 진행돼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그림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시·북콘서트·공연 등 분야별 그림책 작가가 참여하면서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이번 국제그림책도서전이 그림책 출판사와 동네책방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출판사-작가-서점-독자가 함께하는 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일조한 만큼 향후 행사가 독서출판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림책 출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그림책 작가뿐 아니라 편집자·번역가 등 다양한 관계자 강연 및 지역·



신인 작가 소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서는 △해외 및 국내 그림책 작가 원화전을 비롯한 전시 및 작가와의 만남 △인극장 △동네책방-그림책 출판사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행사 기간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책 원화 전시와 전시 해설이 함께 이뤄진 '다시마 셰이조 작가 원화전'과 '이명애 작가 초대전'의 경우 타 지역 방문자 비율이 42.7%에 달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원화 전시 및 강연·공연 참여자 6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응답자의 98%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재훈 기자

관광객 위한 짐배송 서비스 '짐이 부탁하노라'

전주시, 11월까지 KTX 이용 관광객 짐 무료 배달 서비스 시범 운영

KTX를 이용해 전주한옥마을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여행객의 짐을 대신 배달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주역과 한옥마을 지정숙박업소 간 관광객의 짐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짐배송 서비스인 '짐이 부탁하노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2022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서비스는 전주를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더 편하고 느긋하게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전주역에서 협약·지정된 한옥마을

내 15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전주역에 도착할 때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당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에도 숙소에서 전주역까지 갈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짐배달 접수 마감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다.

전주역에 도착한 여행객이 접수처에

짐을 맡기면 오후 7시 전에 숙박업소로 짐이 배송되며, 숙소를 떠나는 여행객은 오전 10시 30분까지 숙소 프론트에 짐을 맡겨놓으면 전주역으로 오후 3시 이전에 배송된다.

배송 결과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짐배송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는 전주역 짐배송 접수처 또는 한옥마을 지정 숙박업소에서 현장 접수하면 되며, 향후 코래일 누리집(info.korail.com)에도 KTX 티켓 예매시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설공단, 추석연휴 실외 체육시설 무료 개방

전주시설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시민의 체육활동을 돕고 자 연휴 기간에 실외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 개방되는 실외 체육시설은 월드컵경기장(풋살)과 종합경기장(육상), 덕진체육공원(축구, 풋살, 축구), 완산생활체육공원(축구, 풋살, 테니스, 축구, 정구), 아중체련공원(축구, 풋살,

축구), 고덕생활체육공원(축구), 솔내생활체육공원(축구, 풋살, 축구) 등이다.

무료 개방일은 9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전날과 당일 이틀간이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이용자별로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무료이용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6~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뉴스

전주시, 추석선물세트 과대포장 등 집중 단속 나서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재활용가능제품의 분리배출 표기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나섰다.

시는 5일 한국환경공단, 전북도 등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추석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과대포장

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없애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포장 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등을 중점 점검했다. /김재훈 기자

